

오차장님 '미생'은 공감이었죠... 그래, 맞다

'3색 공연' 입맛대로 골라 보자

타악 이현동 독주회...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흥겨운 타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타악기주자 이현동(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 단원)씨가 독주회를 갖는다. 22일 오후 8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장미나무 건반으로 만들어진 마립바, 작은북으로 불리는 스페어드럼, 타악기 하면 빠질수 없는 드럼 세트, 서아프리카 악기인 켈레 등 다양한 타악기 연주를 솔로 무대로 만날수 있다.

연주 레퍼토리는 마립바로 연주하는 게이코 아베의 '대숲에 부는 바람', 단테 아고스티니의 '기차', 드럼과 피아노가 어우러진 '하러사나', 토시미츠타나카의 '마립바를 위한 두개의 동지' 등이다. 또 켈레와 목소리가 어우러진 '리듬의 신에게' 등 재미있는 곡들도 연주한다.

이씨가 리더로 있는 HAMCO 타악기 앙상블팀과 피아니스트 조연미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영남대 출신으로 대구 국제현대음악제 DCMF앙상블 단원의



로 활동한 이씨는 현재 광주대 관현악 지휘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광주대 등에 출강중이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10-2806-0114. /김미은기자 mekim@

'미생'이 남긴 것

매일매일 전쟁터 같은 직장생활 사실적 묘사 드라마·원작 만화 열풍

광주 출신 윤태호 작가 신안선 도굴 '파인' 연재도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

'미생'의 작가 윤태호는 현재 아프다. 누적인 피로 탓에 목과 어깨가 몹시 불편해 붓을 들지 못한다. 내년 1월 6일까지 '절필'을 선언했지만 매주 그의 포털사이트 연재 만화를 기다리던 독자는 항의보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흔치 않은 일이다. 참을성 없는 네티즌이 연재 날짜를 지키지 못한 만화가에게 휴식을 취하라며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엇이 윤태호를 이리 띄워주고 있는가? 또 미생은 왜 '미생 파인'을 만들어내고 진한 감동을 남겼는가?

지난 20일 방송된 tvN '미생'은 평균 시청률 8.4%, 최고 시청률 10.3%를 기록하며 드라마 자체 시청률 최고치로 막을 내렸다. 또 동명의 만화책 '미생'은 누적판매부수 200만부를 넘어섰다.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광고도 완판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마지막회에서 장그래(임시완 분)는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지만 과거 자신을 '완생'으로 이끌어줬던 영업 3팀 선배들과 다시 뭉쳤다. 오차장과 장그래를 떠나 보낸 김동식 대리(김대명 분)가 합류하면서 영업 3팀은 새 삶을 살게 된다.

윤태호의 원작 만화 '미생'과 같은 제목의 드라마 '미생'이 인기를 끈 것은 직장생활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이다. '미생'은 누구나 한 번쯤 직장 생활

을 하면서 느끼는 일을 형상화했고, 현실에서도 꼭 있을 것 같은 직장 상사와 동료의 모습을 그려 감동을 줬다.

윤태호씨는 "미생 열풍은 공감대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만화와 영화, 드라마 등에 등장하는 직장 생활이 현실과 많이 다르고 직접 체험할 수 없는 소재를 다루다 보니 감동이 적었다"면서 "미생'에는 실제 직장인들이 힘들어하는 일상이 담겨 있어 많은 사람이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상에 내던져진 패배자 '장그래'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미생' 마지막회는 그 사람들과의 '뜨거운 연대'를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가슴을 사로잡았다.

위안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플랜 B'는 매일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직장인에게 꿈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직장 생활이 삭막해질수록 '결국 희망은 사람이다'는 지극히 명징한 결론은 공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만화와 드라마 '미생'은 순한 명대사도 남겼다.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죽을 때까지 다가오는 문만 열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등의 대사는 시청자들을 울렸다.

또 선차장(신은정)을 통해 일과 육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워킹맘들의 마음을

애잔하게 그려냈다.

'미생'의 감동 뒤에는 지독한 완벽주의자인 광주 출신 만화가의 열정이 있었다. 그는 '미생'을 위해 3년 동안 취재만 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바둑과 무역회사의 일상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더욱 생생해졌다.

그는 "한국기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취재했고, 회사원의 일상은 직장 커뮤니티 등을 돌며 수많은 글을 읽었으며 실제 종합상사 인터뷰도 많이 했다"고 소개했다. 만화를 그리기 전 그는 대리와 부장 중 누가 상사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만화 속 장그래가 요르단문화원을 오가며 요르단의 문화와 경제를 조사한 것처럼 작가 스스로 요르단문화원을 내 집 드나들 듯했다. 요르단은 윤태호의 아버지가 30년 전에 일한 곳이기도 했다.

이처럼 '미생'은 우리 사회의 민낯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직장)에 대한 그리움이였다. 만화와 드라마 속 '오차장'이 내 주변에 딱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기도 했다. 또한 어깨와 목을 '아작' 낸 작가의 열정에 보내는 환호이기도 했다.

한편 윤태호는 목포와 신안 일대를 배경으로 신안선의 유물을 도굴하는 이야기인 '파인'을 한 포털사이트에 연재하고 있고, 조만간 '미생 시즌2'를 그릴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합창 한국예술인협동조합 23일 일곡도서관

한국예술인협동조합 송년음악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 일곡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협동조합이 올해 창단한 문화신포니에타 여성합창단들의 무대로 꾸며진다. 매주 한 차례씩 모여 연습을 해온 단원들은 이번 무대에서 합창, 중창, 독창 등 다양한 형태의 노래를 들려준다.

'겨울'을 주제로 열리는 1부에서는 합창곡으로 독일민요 '소나무', '에델바이스', '여유있게 걷게 친구'를 들려준다. 또 조은경, 이은경씨가 솔로곡 '세월이 가면'과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를 선사한다.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2부에서는 합창곡 '창밖으로 보라', '겨울바람',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 'Over the rainbow', '산타할아버지 우리 마음에 오시네', '루돌프 사슴코' 등을 연주한다.

지휘를 맡은 테너 김백호씨는 가곡 '내맘의 강물',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 티카나' 중 아리아를 선보이며 피아노 반주는 김은진씨다.

한편 협동조합은 만 20~55세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합창단원도 모집한다. 무료 관람. 문의 010-3645-11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악 임방울국악계 대통령상 수상자 23일 무대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종채)가 임방울국악계 대통령상 수상자들이 참여하는 국악 한마당 공연을 갖는다. 23일 오후 1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공연장.

이날 공연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연자(2000년 제8회), 김천미(오른쪽·2005년 제13회), 서정민(왼쪽·2014년 제22회) 명창이 출연해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황성 올라가는 대목', '춘향가' 중 '숙대머리', '흥보가' 중 '흥보 박 타는 대목' 등 판소리 눈대목을 들려준다. 또 '성주풀이' 등 흥겨운 남도민요와 가야금 산조, 산조협주 등을 선사한다.

또 임방울국악진흥회가 진행하는 임



방울 국악교실 수상자들의 무대도 마련된다. 박선옥 강사와 수강생이 함께하는 살풀이 무대를 비롯해 최기종씨 등 판소리 수강생 17명이 부르는 '수궁가' 중 '토끼화상'과 민요수강생 문지현씨 등이 하는 '내 고향 좋은시골' 공연, 서영원씨 등 16명의 고법 수강생이 마련한 '합복' 등을 만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광주다움... 문화도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포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은 22~23일 오후 3시 광주YMCA 2층 어비스실에서 '광주다움에서 찾는 문화도시,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주제로 우문현담 포럼을 개최한다.

'광주다움에서 출발하는 문화도시'를 주제로 22일 열리는 첫번째 포럼에서는 정성구(우도시문화재단 CS 대표)와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이 '광주다움으로 만들어지는 문화전당, 문화도시'와 '광주학 총서'를 통한 광주의 재발견'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류동훈 행복문화사업단 대표 등이 토론한다.

23일 포럼에서는 박종찬 광주대 교수의 '광주 지역문화브랜드, 어디쯤인가?-브랜드 공연, 비엔날레, 축제를 중심으로'와 전고필 대인예술시장 총감독의 '광주만의 브랜드 가치, 키워드로 보는 광주의 현재와 미래' 주제발표한다.

문의 062-234-2727. /김경민기자 kki@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에 '임... 행진곡' 작곡 김종률씨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56)씨가 선임됐다.

김종률 선임사무처장은 BMG와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음악기획 및 문화컨설팅 업체인 (주)JR 미디어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특히 전남대 재학 시절인 1981년 윤상원·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 선임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무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학교 잘 다녀왔어?"



"숙제는 잘 하고 있지?"



"오늘 간식은 뭐 먹었어?"

www.cjhellovision.com